

麗刻本「東人之文五七」殘本(卷7~卷9)에 對하여

辛 承 云*

〈목 차〉

- | | |
|------------------|---------------|
| 一. 叙 | 四. 內容과 史料의 價値 |
| | 1. 內容 |
| 二. 編者 崔濟의 生涯 | 2. 價値 |
| 三. 形態와 開板 및 그 규모 | 五. 結語 |

一. 叙

韓半島에 漢文이 流入되면서 漢文은 우리 民族의 중요한 表記수단이 되었다. 한글이 창제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약간 둔화되었지만 국제간의 外交나 內治에는 여전히 漢文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모든 敎育은 儒敎經典을 비롯한 제반 漢文의 理解力과 이를 토대로 한 作文力을 기르는 方向에서 이루어졌고, 人才의 選拔을 위한 시험(科擧制)도 이러한 漢文의 理解력과 作文力을 考查하는 방

* 民族文化推進會 編纂室長

향으로 흐르게 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렇듯 敎育과 科學制가 당대에 필요한 人才의 育成과 選拔이었으므로 모든 學人들은 中國文上의 대등한 수준의 經史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作文力을 學習의 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中國의 經·史·子·集 등 제반 書籍의 輸入·刊行이 역대 왕조에 걸쳐 꾸준히 이어져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중에서도 中國과 交換되는 外交文書의 解讀과 製述은 특히 중요한 과제였음을 三國史記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¹⁾

이러한 필요에서 「文選」·「文館詞林」·「唐文粹」·「宋文鑑」·「元文類」 등 수많은 中國의 詩文選集들이 역대 王朝에서 수입 간행되었고, 이는 敎育과 科學에서 중요한 텍스트의 구실을 하였음도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外交文書의 製述과 敎育은 필연적으로 지난날의 慣例에 대한 詳考를 필요로 했고, 이러한 문제는 中國의 「文選」 등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자연히 東人에 의한 東人의 選集편찬의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초로 시도된 것은 金台鉉(1261-1340)의 「東國文鑑」이다.²⁾ 그러나 「東國文鑑」은 일찍이 佚失되었고, 이의 뒤를 이은 것은 崔瀾(1287~1340)의 「東人之文」이다.

崔瀾의 文集인 「拙藁千百」에 수록된 東人之文序에 의하면, 東人之文은 詩를 모은 「東人之文五七」과 文을 모은 「東人之文千百」과 四六文을 모은 「東人之文四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³⁾ 그러나 이들은 일찍이 佚失되고, 그 중 일부인 「東人之文四六」만이 1968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여 1980년도에는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 의하여 千惠鳳教授의 해제를 붙여 公刊되었고,⁴⁾ 뒤이어 1981년 다시 상세한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

1) 金富軾, 「三國史記」 卷四十六 強首列傳 “文武王曰 強首文章自任 能以書翰致中國及麗濟二邦 故能結好成功 我先王諱兵於唐以平麗濟者 雖曰武功 亦由文章之助馬 則強首之功 豈可忽也…”

2) 崔瀾, 「拙藁千百」 卷一. 金文正(台鉉)墓誌

3) 崔瀾, 「拙藁千百」 卷二. 東人之文序

4)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高麗名賢集」 第五輯所收 東人之文四六 참조.

다.⁵⁾ 그 뒤 1990년에 「東人之文五七」의 殘本이 三省出版社 金宗圭사장의 藏書에서 발견되어 소개된 바 있다.⁶⁾ 필자는 최근에 소장자로부터 이를 借覽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 새로 발견된 「東人之文五七」(殘本)에 대하여 그 형태와 開板, 內容과 史料的 價値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小考의 작성을 지도해 주신 千惠鳳教授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貴重한 자료를 筆者의 연구를 위해 선뜻 제공해 준 所藏者 金宗圭사장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二. 編者 崔愷의 生涯

崔愷(1287~1340)에 대한 傳記資料로서 오늘날 남아 있는 것으로 稼亭 李穀(1298~1351)이 쓴 墓誌銘⁷⁾과 「高麗史」에 실린 崔愷例傳⁸⁾외에 陽村 權近(1352~1409)이 쓴 東賢史略에 수록된 待制崔愷條 등이 있지만, 모두 대동 소이하고 내용도 소략해서 그의 생애를 상세하게 기술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東人之文五七」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상의 자료와 기왕의 先行研究¹⁰⁾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崔愷의 字는 彥明父 혹은 壽翁이고 號는 拙翁·拙齋·貌山農隱이다. 시조는 崔致遠이며 父는 伯倫이다. 伯倫은 忠烈王 8年(1282)에 장원급제한 후, 中顯大夫(종3품)에 올랐다. 母는 大護軍으로 致仕한 任綏의 딸로서 충렬왕 13年(1287)에 崔愷를 낳았다. 충렬왕 29年(1303) 17세로 급제한 그는 成均學官으로 初仕를 맞게 되며 충선왕 1年(1309)에는 長沙監務로 辟직되

5) 千惠鳳, 麗刻本 東人之文四六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14輯 (서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881) PP.129-151. 참조.

6)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P.128.

7) 李穀, 「稼亭集」 卷十 -, 大元故將仕郎遼陽路蓋州判官高麗國正順大夫檢校成均館大司成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崔君〔愷〕墓誌

8) 鄭趾, 「高麗史」 卷109, 崔愷列傳

9) 權近, 「陽村集」 卷35, 東賢史略 待制崔愷條

10) 千惠鳳, 前揭論文.

기도 한다. 충숙왕 7년(1320)에는 長興庫使로서 丹陽府主簿 安軸, 司憲糾正 李衍宗과 함께 원나라에 가서 이듬해에 元의 制料에 合格하게 된다. 元에서 遼陽路 蓋州判官에 임명되었으나 5개월 후 稱病하고 귀향하였으며 고려에서 성균관의 승(중 5품) 예문관의 응교(정5품)를 거쳐 檢校成均館大司成(정 5품)으로 충숙왕 10년(1323)에 단기간의 벼슬살이를 마치고 致仕하게 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재주가 특이하여 超然하게 學問을 自得하였다. 元에서 性理學을 연구하고 돌아온 自願正의 문하에서 먼저 師受한 弟子이며, 益齋 李齊賢과는 절친한 同年輩友였으므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詩文學은 新學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는 斯道를 信奉 尊重하는 文士로서 異端에 眩惑되지 않았고 舊習이 끼치는 폐단을 싫어했으며 문장을 지을 때는 古人에 符合되도록 힘썼다. 그리고 佛敎의 쇠퇴와 함께 도래하게 된 여러가지 폐단을 매우 혐오하여 儒者로서는 擇할 것이 못된다고 異端視해 왔다. 말하자면 그는 새로 도입된 性理學의 바탕위에서 詩文學의 成熟을 본 文士였다.

그러나 한편 그의 성격에는 큰 短點이 있었다. 즉 元 制料의 합격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지나친 自慢心을 갖게 한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자신의 재주를 믿고 지나치게 輕妄한 행동이 자주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그는 忌避의 對象이 되었고 이러한 그의 성격은 결과적으로 그가 어쩔 수 없이 일찍 公退生活을 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

그가 城南獅子山麓에서 隱退生活을 하고 있었을 때 지은「猓山隱者傳」은 자서전인데, 그 글에서 그는 어릴적에 이미 天理를 아는 듯 就學하자 그 要旨를 깨달으면 문득 卒業하여 한 구석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따라서 그 學問이 汎博하나 究理가 깊지 못했음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成長함에 따라 功名에 뜻을 두고 분발해보려 했으나 世人이 끝내 받아주지 않았고, 親友들도 고치도록 권하고 責도 해왔으나 고쳐지기 어려운 性格의 所有者로 굳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治産에도 너무 소홀하여 生活이 매우 빈한하여 죽은 뒤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사를 치를 정도였다. 初娶인 義城郡夫人 潘氏(檢校評理 汝源女)에서一女, 再娶인 平康郡夫人 蔡氏(祗候 興生女)에서

二女를 生産하였을 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家業의 維持가 더욱 困難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崔瀟는 性格탓으로 不幸한 隱退生活을 하다가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自著의 「拙藁千百」2卷은 大部分이 隱退時節에 다듬어진 珠玉들이다. 隱退時期에 이룩해 놓은 또 하나의 큰 業績으로서는 羅麗名賢의 文集을 두루 搜查 涉獵 精選하여 「東人之文」(五七·千百·四六)25卷을 편찬한 일이다. 이제 그중 「東人之文四六」이 이미 발굴되고 영인본으로 공개되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터에, 비록 완본은 아니지만 그의 詩學에 대한 높은 조예를 살펴볼 수 있는 「東人之文五七」이 수백 년을 지난 오늘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三. 形態와 開板 및 그 규모

새로 발견된 「東人之文五七」은 表題에 東詩라 墨書되어 있고, 내용은 第7卷에서 第九卷에 이르는 3卷 1冊의 殘本이다.

第七卷은 版次가 九版에서부터 시작되어 第二十版에서 끝나고 있어, 앞부분 8版이 缺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第八卷은 20版이고, 第九卷은 18版이나 뒷부분에 落張이 있다. 따라서 現存本은 表紙를 제외한 3卷 50장인 셈이다.

本書는 卷七의 卷尾와 卷八의 卷首와 卷尾, 卷九의 卷首에 의하여 完稱이 「東人之文五七」임이 확인된다. 版心題는 「東文五七」로 되어 있으며 각기 「東文五七之七」(八·九)로 축약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卷別로 版次가 기록되어 있다. 各張의 版心上下에 細黑口가 있다. 每版의 半匡은 均一하게 가로 16cm 세로 25cm이며, 9行이고 각 行은 18字이며, 注는 細字雙行이다. 글씨는 비교적 해정한 편이며 六朝를 이은 唐楷書의 筆意가 물씬 풍긴다. 특히 「東人之文四六」이나 「拙藁千百」보다 매우 정리된 상태이며¹¹⁾ 상당부분

11) 東人之文四六이나 拙藁千百이 각기 行別 글자수에 다소의 차이가 보이고 版의 크기도 均一하지 못한 편인데 비하여, 東人之文五七은 규격이나 字數 및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여 매우 정리된 느낌을 준다.

이 훼손된 상태이지만 刀刻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부분도 있다. 그 한 부분을 보이면 별지의 견양과 같다.

「東人之文」의 刊行에 대하여는 前掲한 先行研究에서 매우 자세히 考究되어 있다.¹²⁾ 千教授는 동논문에서 「東人之文四六」은 1355년 간행된 安東本과 晉州本의 두 가지 판종이 있음을 언급하고 刊記에 刊年이 명기되지 않은 晉州本의 刻手가 「拙藁千百」의 刻手와 동일한 점을 밝혀내어 그 刊行年代를 拙藁千百의 刊年인 1356년 경으로 論定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閱思平 등의 요청에 따라 鄭國徑이 1350년경 전라도 안렴사로 나가며 줄고천백 및 동인지문을 간행한 바 있음을 밝히고 이를 初刊本에 비정한 바 있다.

이제 새로 발견된 「東人之文五七」에는 애석하게도 刊記가 남아있지 않고 간행에 대한 기록도 千惠鳳教授가 밝힌외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刊行年度나 刊行地에 대하여 정확히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천혜봉교수는 字體 및 版式으로 보아 福州本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그에 비정하고 있다. 필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四六에서 나타난 避諱字인 武·治·堯 등도 五七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康王, 忠憲王, 忠敬王, 등 고려 역대王에 대한 칭호 등을 감안할 때 같은 시기의 麗刻版으로 보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東人之文五七」은 편찬 당시 몇 권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도 분명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趙云乞(1331~1404)이 편찬한 詩選集 「三韓詩龜鑑」(上·中·下 3卷¹³⁾)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원래의 卷數와 없어진 卷에 수록된 면모까지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三韓詩龜鑑」은 各卷의 卷首題 다음에 ‘拙翁 崔瀨批點, 石礪 趙云乞 精選’의 2行이 표기되어 있다. 종래에는 이를 조운홀이 精選하고 최해가 批點과 批解를 붙인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번에 五七의 발견으로 이에 대한 再檢

12) 千惠鳳, 前掲論文

13) 趙云乞撰 金甲起譯註 「三漢詩龜鑑」(서울, 二友出版社, 1989). 本書는 「麗·麗漢詩選」으로 改題되어 있으나 부록으로 원문이 영인첨부되어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討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東人之文五七」과 「三韓詩龜鑑」의 대비를 위하여 수록詩人和 수록된 詩의 篇數를 조사하여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龜鑑은 詩體에 따라 分卷하여 同一詩人이 三卷에 걸쳐 重出하므로 시대에 따라 재배열한 것이다.

〈東人之文五七 과 三韓詩龜鑑의 비교〉

人名(生沒年)		三韓詩	五七	人名(生沒年)		三韓詩	五七
1	崔致遠(857~?)	24		29	金克己(? ?)	37	[11]
2	朴仁範(? ?)	1		30	趙準(? ?)	1	1
3	崔光裕(? ?)	2		31	俞升旦(1168~1232)	1	4
4	崔承老(927~989)	2		32	金君綏(? ?)	1	2
5	朴寅亮(? ~1096)	2		㉓	金仁鏡(? ~1235)	0	1
6	朴浩(? ?)	2		34	李奎報(1168~1241)	30	50
7	郭興(1058~1130)	1		35	陳濬(? ?)	9	18
8	金仁存(? ~1127)	2		36	柳伸(? ~1104)	1	1
9	吳學麟(? ?)	1		37	崔滋(1188~1260)	1	3
10	金富軾(1075~1151)	8		38	李藏用(1201~1272)	1	7
11	印毅(? ?)	1		39	張鎰(1207~1276)	1	2
12	權適(1094~1146)	2		40	金坵(1211~1278)	2	5
13	高兆基(? ~1157)	1		㉔	俞千遇(1209~1276)	0	1
14	鄭知常(? ~1135)	7		㉕	朴恒(1227~1281)	0	1
15	崔惟清(1095~1174)	15		43	白文節(? ~1282)	3	5
16	李之氏(1092~1145)	2		44	郭預(1232~1286)	3	11
17	鄭襲明(? ~1151)	2		㉖	朱悅(? ~1287)	0	2
18	任奎(? ?)	2		㉗	李尊庇(? ~1297)	0	1
19	許洪材(? ~1170)	1		㉘	鄭可臣(? ~1298)	0	2
20	金莘尹(? ~1171)	3		48	李承休(1224~1300)	1	3
21	崔鴻賓(? ?)	1		㉙	金暉(1234~1305)	0	1
22	林宗庇(? ?)	2		㉚	安珣(1243~1306)	0	1
23	崔謙(1135~1211)	2		51	吳漢卿(1242~1314)	2	5
24	崔永嵩(? ?)	1		52	李混(1252~1313)	3	6
25	安淳之(? ?)	1		㉛	鄭允宜(? ~1307)	0	1
26	盧永綏(? ?)	1		54	洪侃(? ~1304)	16	[20]
27	林椿(? ~1170)	16					
28	李仁老(1152~1220)	28					

위 表의 1번 崔致遠에서부터 54번 洪侃까지는 「三韓詩龜鑑」과 「東人之文五七」에 보이는 총인원이다. 그중 五七에는 29번부터 54번 洪侃까지 26명의 시만이 남아 있고, 「三韓詩龜鑑」에는 五七에 수록된 시인중 번호에 ○ 표를 한 金仁鏡, 兪千遇, 朴恒, 朱悅, 李尊庇, 鄭可臣, 金昞, 安珣, 鄭允宜의 등 9명을 제외한 45명의 시인의 시를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表에서 「三韓詩龜鑑」과 「五七」에 함께 남아 있는 부분인 30번 조준이하 (김극기의 시는 일부만이 남아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를 비교해 보면 「삼한시귀감」은 수록시인과 편수를 축소한데 불과하며, 그것도 五七에서 단 1편의 시를 실고있는 11명 중 위에 열거한 金仁鏡 등 9명만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三韓詩龜鑑」의 각 卷의 卷首題 다음에 “拙翁崔濬批點 石礪趙云佺精選”이라 쓴 2行의 글이 줄용 최해가 批點을 加해서 편찬한 <東人之文五七>에서 석간 조운홀이 精選하여 <三韓詩龜鑑>을 엮었다.”는 기록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東人之文五七」 전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단서를 갖게 된다. 즉 편자 최해가 東人之文序에서 收錄下限을 忠烈王代(1274~1308)까지로 한정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위표에 보이는 洪侃(?~1304)의 활동시기와 일치하고 있고 「三韓詩龜鑑」과 「東人之文五七」에서 모두 洪侃을 맨 뒤에 배치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東人之文五七」의 끝부분은 아마도 洪侃일 것이며 따라서 「東人之文五七」의 총 규모는 9卷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東人之文五七」은 적어도 崔致遠이후로 54명이상의 주요 인물—좀 더 추정하자면 李仁老 이전의 수록인물은 대부분 고려전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좁았을 것이므로 54명을 크게 넘지 못하는 숫자의 인물 수—을 수록하고 있으며, 現存本에서 3卷을 1冊으로 結冊하고 있으므로 9卷 3冊의 형태가 아닌가 한다. 이는 「東人之文四六」이 대부분 3卷 1冊으로 결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現存 「東人之文五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洪侃으로 끝나고 있

는데 洪侃의 小傳앞에 기록된 標題에는 “洪侃二十首”라고 적고 있어, 본래 수록된 시가 20首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洪侃의 시는 16首(12題)만 남아 있어서 4首가 缺落되었으며 수록위치로 보아 이는 七言絶句라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三韓詩龜鑑」을 통해서 이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三韓詩龜鑑」은 「東人之文五七」과 달리 人物別 배열이 아니라 詩體別 배열이므로 五七에서 缺落된 洪侃의 七言絶句를 三韓詩龜鑑의 七絶을 담고있는 中卷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五七에 수록된 洪侃의 마지막 詩題인 「雪」¹⁴⁾은 「洪崖遺藁」에 의하면 2首로 되어 있는데,¹⁵⁾ 그 가운데서 五七에는 第一首만 남고 缺落되었고, 「三韓詩龜鑑」에서는 五七에는 실려 있던 2首 중 두번째 시만을 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어서 同 一의 「太白醉歸圖」 3首 도함 4首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이들 4首의 詩를 「東人之文五七」의 行當 18字로 계산하면 「雪」에서 2行 (五七의 경우 같은 題의 여러 편의 시는 行만 바꾸고 ‘又’ 또는 ‘1, 2, 3’ 등의 표시가 없음)과, 「太白醉歸圖」 3首의 詩題 1行과 本文 6行을 합쳐 모두 8行이 된다. 또 五七은 半版이 9行이므로 本書의 落張은 아마도 1張 (跋文등의 附錄이 없는 한) 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五七은 9卷 3册이라 볼 수 있으며 60여 명 내외의 인물을 수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東人之文」의 총권수는 25권이다. 그러나 이 25라는 숫자는 편자인 최해가 쓴 글중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다만 그의 사후에 쓰여진 묘지명과 「고려사」의 최해열전에 의하여 알려진 숫자일 뿐이다.

「東人之文四六」이 모두 15권 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이제 다시 「東人之文五七」이 9권으로 밝혀짐에 따라 四六과 五七을 합한 24권을 제외하면 「東人之文千百」은 1권인 셈이 된다. 그러나 「東人之文千百」은 四六文과

14) 趙云佐, 「三韓詩龜鑑」卷中, 雪 참조.

15) 洪侃, 「洪崖遺藁」第一版 (서울, 民族文化推進會刊, 韓國文集叢刊 2輯所收) 雪. 참조.

卷次	姓	名	五古	七古	五排	七律	五律	七律	七絶	七絶	計
9	白文節	?~1282		1						4	5
	郭預	1232~1286		1	1		3			6	11
	朱悅	?~1287								1	1
	李尊庇	?~1287						1			1
	鄭可臣	?~1298						1			1
	李承休	1224~1300						2		1	3
	金	1234~1305						1			1
	安珣	1243~1306						1			1
	吳漢卿	1242~1314						3	2		5
	李混	1252~1312	1				1	1		3	6
	鄭允宜	?								1	1
洪侃	?~1304		8		1		1		6	16	
計 26名			8	17	2	1	21	32	10	68	159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人之文五七」의 現存本은 고려 明宗時代의 詩人 金克己·兪升旦으로부터 忠肅王代의 吳漢卿에 이르는 26名の 詩 159首(131題)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東人之文 序에서 수록범위를 忠烈王時(1275 ~ 1308)까지로 언급한 데 비해 忠肅王(1年, 1314)代 까지의 생존 인물이 2명이나마 수록된 것은 이들의 주된 活動 시기가 忠烈王時代였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⁶⁾

詩體別로는 七言絶句가 68首로 가장 많고 다음이 七言律詩로 32首이며 五言律詩가 21首, 七言古詩가 17首, 五言古詩가 8首, 五言排律이 2首 七言排律이 1首이다.

詩文選集은 文體別로 彙集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비하여 五七이 時代別 人物別로 彙集된 것은 분명 五七의 한 특색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16) 실제로 吳漢卿(1242~1314)의 경우를 보면 朴全之, 李珣·權承과 함께 사랑을 받아 詞林四學士로 병칭되면서 충렬왕의 측근역할을 하다가 충선왕이 즉위하자 致仕하고 활동하지 않았다. 「高麗史節要」(卷22, 忠烈王 24年)와 「東人之文五七」의 本人의 小傳 참조.

「東人之文四六」이 文體別로 나누고 그 아래에서 時代別로 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¹⁷⁾

2. 價 值

「東人之文五七」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詩人の 標題下에 실고 있는 각 人物의 小傳이다. 이제 崔滋(1188~1260)의 경우를 예로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滋。字樹德。禮部尙書淪之曾孫。祖允仁。官至監察御史 父敏。禮賓丞同正。滋。天資淳訥。不以表表爲能。康王壬申。田慶成榜登科。滯於學官。十年不遷。李平章奎報。見其所作虞美人草等詩。以爲時人罕比。恨知之晚。遂言於崔瑀。驟加擢用。代奎報主文。忠憲王壬子戊午二次知舉。位至平章。爲冢宰。至忠敬王卽位庚申。年七十三卒。諡文清。自號東山叟。有集號崔相國集。八卷。又有續破閑三卷。子有侯。忠憲王甲寅。尹世衡榜登科。官至奉翊大夫。有杯。卒於東京留守判官。有汾。位至僉議政丞。封大寧君。〔滋의 字는 樹德, 예부상서 최약의 증손이다. 조부 崔允仁은 벼슬이 감찰어사에 이르렀고, 부친 崔敏은 禮賓丞同正이다. 최자는 천품이 순박하고 어눌하여 表表한 것으로 능사를 삼지 않았다. 康王 임신년(1212)에 전경성방에 등과하였으나 學官에 머물러 10년이 되도록 승진하지 못했다.

평장사 이규보가 <최자가> 지은 虞美人草 등의 시를 보고는 당대인으로는 그에 비길 만한 이가 없다고 하고 늦게 알게 된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 즉시 최우에게 건의하여 갑자기 발탁되었고, 이규보를 대신하여 文衡을 맡아 忠憲王(忠憲은 高宗의 시호) 壬子年(고종 39年, 1252)과 戊午年(고종 45年, 1258) 2차의 知貢舉를 맡았다. 벼슬이 平章事에 이르고 冢宰가 되었다. 忠敬王(忠敬은 元宗의 시호)이 즉위한 庚申年(1260年)에 73세로 죽었다. 시호는 文清이다. 自號를 東山搜라 하였다. 文集이 있는데 「崔相國集」이라 하며 8卷이다. 또 續破閑 3卷이 있다. 아들 有侯는 忠憲王 甲寅年

17) 이는 中國의 「文選」, 「唐文粹」, 「宋文鑑」, 「元文類」 등 뿐만 아니라 「三韓詩龜鑑」, 「東文粹」, 「靑丘風雅」, 「東文選」 등도 모두 文體別로 분류하고 있다.

(1254)에 尹世衡방에 등과하여 벼슬이 奉翊大夫에 이르렀고, 有杯는 東京留守 判官으로 죽었으며, 有滄은 벼슬이 僉議政丞에 이르렀고 大寧君에 봉해졌다.]

이상에서 우리는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詩文選集에서 이러한 作者의 小傳(다양한 내용을 담은)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뒤이어 나온 「三韓詩龜鑑」·「靑丘風雅」·「東文粹」·「東文選」 등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점이다. 이는 朝鮮뿐만 아니라 中國의 歷代詩文選集인 「文選」·「唐文粹」·「宋文鑑」·「元文類」 등에도 없는 일이다. 다만 「中州集」에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¹⁸⁾ 牧隱의 詩가운데 이 「中州集」을 언급하고 있는 점¹⁹⁾ 등을 감안할 때 元好問이 撰한 「中州集」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東人之文五七」에는 採錄된 詩에 批點이 있을 뿐아니라 小傳에 읽기에 편리하도록 標點이 刻入되어 있다는 점이다. 五七에 나타난 標點은 물론 句와 讀의 구분없이 모두 傍點으로 되어 있다. 이는 中國의 경우 宋나라 때 書籍의 彫板에 圓點의 句讀가 施點된 本이 出刊되기 시작하여 元代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⁰⁾ (標點本과 批點本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稿를 달리하여 詳論하고자 한다.)

셋째, 小傳의 內容이 폭넓은 점이다. 主人公의 字號, 世系, 性品, 科擧, 官歷, 著書를 위시하여 子孫의 科擧과 官歷 등 짧은 기록이지만 매우 넓은 내용을 메모식으로 적고 있다.

일례로 崔滋의 文集名(集號)은 「崔相國集」이고 권수는 8卷임이 확인된다. 종래에 崔滋의 文集(佚失)은 「崔文淸公家集」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崔慈²¹⁾

18) 元好問, 「翰苑英華中州集」(四部叢刊正編 第 97輯 所收, 法人文化社 影印本) 참조.

19) 李穡, 牧隱詩藁 卷四의 朴子虛貞齋記에 “異日撰中州集者…”라고 하여 中州集이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高麗에는 中州集이 전래되었고 文人學者들 간에 익히 읽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20) 張倉禮·陳光前, 「古文斷句與標點」(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86) P.9 참조.

21) 李萬運 等, 「增補文獻備考」(藝文考) 참조.

本傳에 “崔滋…… 諡文清 家集十卷 續破閑行于世”라고 한 것을 맞추어서 「崔文清公家集」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며, 卷數 또한 각기 8卷 10卷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東人之文이 高麗 忠肅王代에 편찬된데 비해 「高麗史」는 조선초기에 편찬된 점을 감안할 때 원래의 崔滋의 文集名과 卷數를 알게 된 새로운 자료라 하겠다.

네째, 종래에 고려시대 科擧制研究에서 정확한 及第年代가 未詳이었던 人物의 及第年代를 비롯한 科擧制에 有關한 부분이 「東人之文五七」의 小傳에 의해 밝혀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參理 張鎰, 贊成 俞千遇, 贊成 朴恒, 大司成 自文節, 知僉議 朱悅, 奉翊大夫 鄭允宜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²²⁾ 이제 이들에 관한 小傳에서 本人의 科擧及第와 本人이 知貢擧(同知貢擧)를 맡은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姓名	試號	出身	科 榜
張 鎰	章簡	昌寧郡鄉貢	忠憲王戊子〔高宗 15, 1228〕李敦勝丙科 忠敬王甲戌〔元宗 15年, 1274〕同知擧
俞千遇	文度	羅州長沙縣籍	忠憲王壬辰〔高宗 19年, 1232〕文禎勝丙科 忠敬王 壬戌〔元宗 3年, 1262〕, 甲戌〔元宗 15年, 1274〕知擧
朴 恒	文懿	春州鄉貢	忠憲王戊申〔高宗 35年, 1248〕金鈞勝登科 忠烈王乙亥〔1年, 1275〕, 己卯〔5年, 1279〕 知擧
白文節		淸州藍浦郡籍	忠憲王 戊戌〔高宗 25年, 1238〕池珣勝登科 忠烈王 庚辰〔6年, 1280〕同知擧
朱 悅	文節		忠憲王 辛丑〔高宗 28年, 1241〕崔宗均榜 登科 忠烈王丙子〔2年, 1276〕典司馬試
鄭允宜		草溪郡籍	忠敬王 戊辰〔元宗 9, 1268〕尹承瓘勝第二 人 忠烈王庚辰〔6年, 1280〕同知擧

22)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서울, 湖閣, 1984)의 부록인 高麗禮部登科錄 참조.

다섯째, 高麗 歷代王에 대한 칭호이다. 例文에서 보듯이 康宗(1212-1213)은 康王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高宗은 忠憲王으로, 元宗은 忠敬王으로 각기 元나라에서 내려준 시호로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듯 고려가 元에 복속된 이후의 王뿐만 아니라 이전의 王까지도 모두 낮추어 적고 있다는 점이다.

五. 結語

이상에서 崔瀾(1287~1340)가 편찬한 東人の 詩選集인 「東人之文五七」(殘本 卷七~卷九)에 대하여 考察한 내용을 요약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東人之文五七」은 新羅 崔致遠으로부터 高麗 忠列王時의 吳漢卿·洪侃 등에 이르는 詩人들의 五言詩와 七言詩를 彙選하고, 批點과 注解를 加하여 麗末에 간행한現存하는 東國 最古의 詩選集이다.

2. 「東人之文五七」은 「三韓詩龜鑑」·「靑丘風雅」·「東文選」 등 여타 詩文選集과는 달리 詩體別 배열이 아닌 人物을 기준으로 편찬되었으며 이들에 없는 詩人의 小傳이 포함되어 있는 특색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들 소전에는 科擧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려시대 과거제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3. 採錄된 詩에는 批點이 刻入되었고 作者別 小傳에는 句와 讀를 구별하지 않은 傍點이 施點刻入되어 있는 점에서 高麗時代의 詩의 批評과 文章標點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4. 「東人之文五七」은 모두 9卷이다. 기왕에 밝혀진 「東人之文四六」 15卷과 五七의 9卷을 합하면 24권이 된다. 최해의 列傳이나 墓誌銘에 나오는 「東人之文」의 총 권수는 25권인데 24권을 제하면 자연히 「東人之文千百」의 권수가 1권밖에 안되므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資料의 부족으로 뒷날의 과제로 미룰 수 밖에 없다. 나머지 1권은 「東人之文四六」과 「東人之文五七」의 總目(또는 卷首)이며, 「東人之文千百」은 계획으

로 끝나고 편찬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
는 역시 묻어 둘 수 밖에 없다. 다만 編者의 東人之文序에는 구체적인 卷數
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刻人之文五七卷之九

耶察瓦額二十一音

預字先甲。清州結文。往至西門博士。預

忠憲王乙卯崔昱下第一人 忠烈王主

平同知舉官至同知密直司事文翰款首

監察大夫丁亥以預

不壽即使朝充行至義州卒于道上年五十

五為入讞逃樂易雖登右府猶如布衣時

子靈龍官至都津長

咸鏡海

扶桑之海遠不極萬里蒼蒼接天已有夷生寄

海中央水道纒通變難測聖明本自置度外邊

將倉功謀欲得受命東征自往年東南師期在

六月千艘駕浪會一岐調赫十六風帆檣欲折

相望涉我之交聲辛苦何須為君說奈昏霧

熏着人滿海浮屍竟氣結望舒虧盈潮瘳生

月也當三十日是時八極顛風來擊碎蒙衝

大疾蒼皇誰借千金壺枉教壯士探蛟室哀哉

(東人之文五七)

柳岸批發叔氣浮我聞鳥語若嘲歌弄工與汝
 爭便事慢罵東風不自強
 善情
 脫身往已竟何成唯有一篇寫容情邈吏不知
 詩有未幾四相笑約冠纓
 鳥散揚花落屋除樓頭一榻黑留餘畫火意
 樂似扇正是炎風用事初
 善齋

瓊花滿眼懶攢頭空悲於菴本秋瘦得倒江
 猿日飲爛醺輝鳥闌喧歌
 諱林文學詩卷
 性命幸來難保難天翁頂頂鬼神不須尋選
 傷清德家麻平生亦易空
 雙江鏡淨抱長眉命蘭舟信游湯瀨素清風
 即澆水恐穿紫衣起波瀾
 曾訪徐侯共醉歸別來燕雁喜相通我今焚塞
 諸黃黍飽拾殘香

(東人之文五七)

On the Donginjimun-ouchil, the Remnant Book
(Kweon7~9) of Incunabulum published in the period
of koryo.

Shin, Seung-woon*

Abstract

Summarizing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following this :

1. Donginjimun-ouchil(東人之文五七), published at the close of Koryo, is not only the oldest anthology but also the only one of the same kinds that we have in present.
2. Donginjimun-ouchil is consist of 9 Kweons.
We can know the fact through comparing samhansigugam(三韓詩龜鑑), because it seems to summerize Donginjimun-ouchil.
3. Donginjimun-ouchil is different from other books and espically has a speial features which in cluding profils about the characters.
4. With additional punctuation marks in profile and critiism marks, we can know the rule of punctuation mark and at the same time it can give many assistances to the study of poetics.

* Division Chief, Notional Culture Promotion Foundation